

2018 송년메세지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내게 물으신다면?

1. 소원

모두에게 소원이 있다. 소원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특별한 소원이 있을 것이고, 보편적인 소원이 있을 것이다. 보편적인 소원을 다루는 주제는 아마 특별한 소원보다 더 광범위한 주제일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이거나 특별한 소원이거나 한 가지 공통점은 '행복'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란다. 행복이란, 마음의 간절함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행복'은 중요하다.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소원은, 여러가지 구체적인 소원 (건강, 학업, 직장 등)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내 자녀의 '행복' 때문일 것이다.

2.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으셨다. 예수님의 궁극적 소원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기도내용이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 내용은 '하나됨'에 대한 기도이다.

[요한복음 17:21-23]

21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2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고자 한 내용이 '하나됨'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23절-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

왜 하나됨을 강조하셨는가? '하나됨'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라는 것이다.

'에하드'라 말하는 '하나'는 무엇을 말하는가? 처음의 상태이다. 본질의 상태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완성된 상태이다. 이 땅의 아름다움은 이 완벽한 '하나됨 (성부,성자,성령)' 위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에덴에는 '번성, 풍요함, 다스림, 생육함'이 있었다. 기초가 튼튼하다. 다시 말하면 땅이 좋다. 어떤 것을 심어도 풍성해진다.

모든 비극은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 생겨났다. 이것이 바로 '욕심에 근거한 죄'이다. 죄가 주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은 무엇인가?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그 때부터 육의 존재, 즉 미완성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깨어짐'이다. 원형, 본질이 부서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완전한 상태의 결과물을 내어도 그 속에 결함이 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을 안고 산다.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엄청난 수고로 땅을 경작해야 한다. 경작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땅은 황무지가 된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수고의 능력은 한계치가 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다. 지금은 수확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가 되면 결국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쏟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불안하다. 그 잠재적 두려움이 미완성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소원'이 있으셨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의 본질인 '사랑', 그것의 구체적 속성인 '하나됨'을 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속성도 하나님처럼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됨'이다.

내가 하고싶은 '욕망'에 근거한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됨'을 버린다. 내 욕망에 도움이 되지않는 모든 것은 걸림돌이다. 제거의 대상이다. 그래서 '깨는 것'이다. 관계, 우정, 사랑도 걸림돌이다. 이런 사람에게 부부, 부모자식 관계, 친구의 우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깨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1) 욕망의 성취가 인간에게 안정감과 만족을 주지 않는다.

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인간이 원하는 욕망의 성취가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성취의 만족뒤에 오는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망의 만족을 성취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 그 허무함은 사람을 '고독'하게 한다. 결국 '나 혼자이구나' 라는 마음을 준다.

(2)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창세기 2:18, 20-25]

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25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독처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아래에서 진행된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아담이 자신의 돕는 배필을 향해 말한 고백이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무슨 말인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독처했던 아담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 고백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되는 순간이다.

24절에 보니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왜? 하나님의 본질을 실제로 경험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완전함을 경험한 순간이다. 독처로부터 오는 결핍이 없어진 순간이다. 서로 다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 '에하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완벽한 증거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의 상태이다(25절). 이 모습이 진짜 사랑이다. 복음의 본질이다. '겸으나 아름답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같은 상태이다. 탕자 아버지가 탕자의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탕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허물과 벌거벗음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상태이다. 언제 우리는 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상태가 바로 '연합'의 때이다.

(3) 부흥의 절대적 조건

부흥의 사건을 공부해보면 부흥의 절대조건이 있다. 그것은 '연합'을 이룰 때이다. 그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국가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 작은 파도가 아니다. 쓰나미 급의 파도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이미 마귀의 모든 권세 (깨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다. 모든 창조의 권세가 '하나됨'의 완벽함 안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교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 하나님이 온 열방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결국 소원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다.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것도 성취하고, 소유하고, 힘도 있는데, 매일 싸우고 다투고 분쟁중에 있다면? 그 소유와 성취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허무한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부흥했으나 그 속에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다면, 외형의 성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함께함 자체가 지옥이다. 화려한 건물, 보여지는 모든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에게, 온 열방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소원을 말해야 한다.

[요한복음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됨으로 사랑을,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 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은 실로 엄청난 영광으로 비추어질 것이다.